



# 올 프로야구 올스타전 광주서 열린다

11년만에... 홈런 비디오 판독 시범 실시

시범경기·올스타전 때 승부처기 도입도

11년 만에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올 시즌 비디오 판독과 승부처기 도입도 실시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KBO 회의실에서 단장회의를 열고 2009년 대회요강 및 경기시행세칙과 관련한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009 올스타전이 오는 7월25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1998년 이후 11년 만이다.

KIA 김조호 단장은 "수익이나 흥행 면에서 3만 구장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방 구단의 활성화와 사기 진작 측면에서 광주 개최를 요구했고 다른 팀들의 양해를 구해 광주 유치에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올스타전 개최를 계기로 신축 야구장 건립에 대한 야구팬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1만3천400석 규모의 무등경기장은 지난 1965년 준공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등장했던 '승부처기'는 시범경기와 올스타전에 한해 도입된다. 시범경기과 올스타전에서 9회까지 경기 승패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연장 10회, 11회에 한하여 승부처기를 하고 11회에도 승패를 결정하지 못하면 무승부가 된다.

홈런 타구에 대한 비디오 판독도 도입된다. 홈런 타구 판독과 관련해 상대구단의 이익이 제기 있을 경우 비디오 판독이 실시되며 구단 및 기타 카메라를 제외한 중계카메라에 한해 판독이 허용된다. 방송화면에 노출 되지 않을 경우 심판판정이 유효하다.

경기개시시간은 주중 오후 6시30분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경기는 오후 5시에 시작한다. 4월4일 개막 2연전에 한해 오후 2시 경기가 열린다. 시범경기는 전 경기 오후 1시에 시작하며 우천시에는 취소된다.

더블헤더는 유지된다. 필요에 따라 더블헤더 경기가 열리며, 1경기는 9회까지만 갖기로 했다. 또한 주말 3연전 우천취소 경기는 이동일인 월요일에 치르며, 월요일 경기가 아바대회와 중복 될 경우는 추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울테면 막아 봐 5일 대전 총무체육관에서 벌어진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KT&G-GS칼텍스 경기에서 KT&G 마리안이 GS칼텍스 정대영, 이숙지의 블로킹 위로 강타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허정무號 테헤란 입성

평가전 마쳐... 해외파 속속 가세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놓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6일 '결전의 땅' 테헤란에 입성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밤(이하 한국시간) 이란 원정길의 중간 기착지였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를 떠나 2시간여 비행기를 타고 6일 오전 테헤란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30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4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현재 2승1무(승점 7)로 조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란이 1승2무(승점 5)로 뒤를 쫓고 있다. 지난해 11월1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정에서 2-0 완승을 했던 한국이 다시 조의 선장부에서 이란마저 꺾으면 남아공행의 8부 능선은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

## 신지에 유럽투어 1R 공동 9위

한국 자매들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시즌 개막전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 첫날 상위권을 점령했다.

5일 호주 골드코스트의 로열파인스 골프장(파72·5천892m)에서 대회 1라운드에서 이일희(21·동아회원권)가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선두에 오른 것을 비롯해 1타 뒤진 김혜윤(20·하이마트)이 4언더파 68타로 공동 5위에 자리 잡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에(21)도 손에 익지 않은 클럽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9위로 첫날을 마쳤다. /연합뉴스

## 이승엽 연봉 6억엔 재계약

일본프로야구의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지난해 일본시리즈에서 부진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연봉 6억엔에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최근 인터넷판에 각 구단 선수를 소개하는 '선수 명감' 코너를 마련했고 이승엽의 연봉을 6억엔으로 표기했다. 요미우리는 아직 이승엽의 재계약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승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동결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6일(금)  
 ▲제23회 전국실내양궁대회(14 : 40-MBC)  
 ▲08/09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 KB국민은행)(16 : 50-SBS스포츠)  
 ▲08/09 대학장사씨름 보경한마당 용장역사급(13 : 00-MBC ESPN)

# 억대 연봉자 100명 첫 돌파

올 프로야구 선수들 각종 재미있는 통계

SK 김광현 225% 인상... KIA 김선빈 165cm 2년연속 최단신

올해 프로야구 역대 연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5일 한국야구연맹(KBO)이 발표한 '2009년 프로야구 소속선수'에 따르면 역대 연봉자는 지난 시즌 94명에서 99명으로 늘었다.

아직 재계약을 마무리 하지 않은 롯데 자이언츠의 강민호가 지난 시즌(1억원)에 이어 역대 연봉을 유지하면 처음으로 역대 연봉자가 100명을 넘어선다.

KIA 타이거즈의 역대 연봉자는 5억5천만원 받는 장성호와 프로데뷔 4년 만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한 한기주(1억2천) 등 총 12명이다.

프로야구 첫 역대 연봉자는 지난 1985년 1억4천844만원을 받은 삼미 슈퍼스타의 장명부다.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 국내 선수들의 평균연봉은 지난해 7천942만원에서 6%(475만원)인상돼 8천417만원을 기록했다.

구단별로 보면 삼성 라이온즈가 1억930만원으로 2005년부터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시리즈 2연패의 SK 와이번스는 1억826만원으로 2위에 올랐고, KIA는 7천

758만원으로 4위다. 히어로즈는 평균연봉이 6천922만원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인상률은 23.6%로 2위에 올랐다.

올 시즌 이진영과 정성훈 등 FA(자유계약선수) 대어를 잇달아 영입한 LG 트윈스는 24.1% 인상률로 1위를 달렸다.

김동주(두산)·손민환(롯데)·양준혁(삼성)은 연봉 7억원으로 최고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2008시즌 다승·탈삼진 왕에 오른 SK의 김광현은 4천만원에서 225% 인상된 1억3천만원에 도장을 찍어 최고 인상률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2009년 프로야구 선수는 재계약을 끝내지 못한 강민호·김주한(이상 롯데), 차화준(히어로즈) 3명을 제외하고 477명에 이른다.

포지션 별로는 투수가 233명으로 전체 선수 중 48.8%를 차지했으며, 내야수 118명, 외야수 85명, 포수 41명 순이었다.

2009년 등록 선수들의 평균연령은 27.6세, 평균신장은 182.4cm, 평균체중은 84.1kg으로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에 비해 평균신장은 5.9cm, 평균체중은 10.2kg, 평균연령은 1.6세 늘었다.

최장신 선수는 197cm인 한화의 신인 박

프로야구 구단별 평균연봉비교 (단위: 만원)

구단	2008 평균연봉	2009 평균연봉	인상률(%) (평균연봉)
SK	9,437	10,826	14.7
두산	7,804	7,492	-4.0
롯데	6,511	7,286	11.9
삼성	11,418	10,930	-4.3
한화	8,305	7,341	-11.6
KIA	7,547	7,758	2.8
히어로즈	5,600	6,922	23.6
LG	7,356	9,133	24.1
계	7,942	8,417	6.0

프로야구 연봉 랭킹 '톱10' (단위: 만원)

순위	구단명	위치	선수명	연봉
1	두산	내야수	김동주	70,000
1	롯데	투수	손민환	70,000
1	삼성	외야수	양준혁	70,000
4	삼성	내야수	박진만	60,000
5	KIA	내야수	장성호	55,000
6	SK	포수	박광원	50,000
6	SK	내야수	김재현	50,000
6	SK	내야수	이호준	50,000
6	삼성	포수	진갑용	50,000
6	LG	투수	박영환	50,000

성호가 차지했고, KIA 김선빈은 지난해에 비해 1cm가 컸지만 165cm로 여전히 최단신 자리를 지켰다.

김선빈은 또 70kg으로 9명의 선수와 함께 최경량 선수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종량 선수인 두산의 최준석(117kg)과는 47kg 차이가 난다. /김여울기자 wool@

## 광주·전남생체협 지도자 양성 주력

광주·전남 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가 학생 등 시·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배치 사업에 앞장 서고 있다.

전남도생체협은 5일 학교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24개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1명씩 파견해 체육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도생체협은 체육 중등교사 자격과 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 전공자 24명을 채용키로 했다.

광주시생체협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2명과 어르신전담지도자 10명, 소외계층 지도자 2명 등 총 54명의 지도자를 5개 구 생체협에 파견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한 시 생체협은 어린이들에게 줄넘기·스트레칭 등 키키는 운동을, 청소년 대상으로는 축구 등 구기종목 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노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건강체조·실버요가 등을 지도하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 정규종합반 모집

수능 재수생 모집반, 전라북도 사립대학 재수생 모집반, 재수·11월20일까지, 10월, 사립대학 입학요강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 062-227-2588

<p><b>전문계열 모집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연세대(고수합격반)</li> <li>· 고려대·연교대·사립대학교</li> <li>· 전남대</li> </ul>	<p><b>자연계열 모집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대학교(고수합격반)</li> <li>· 고려대·연교대·사립대학교</li> <li>· 전남대</li> </ul>	<p><b>개강</b></p> <p>18학 2월 16일(월)</p> <p>19학 3월 3일(화)</p>
---	---	---

문의: (062)227~2588(대)

### 산행안내

1. 산행일: 2009년 2월 7일(토) 08:00 ~ 16:00

2. 산행지: 광주광역시 서구 산정호수

3. 참가비: 5,000원 (교통비, 점심, 물, 보험 포함)

4. 신청처: 광주광역시 서구 산정호수 관리사무소

### 주말두산의 SALE

주말 10시 ~ 18시 062-227-2588

1. 2월 7일(토) 08:00 ~ 16:00

2. 2월 8일(일) 08:00 ~ 16:00

3. 2월 9일(월) 08:00 ~ 16:00

4. 2월 10일(화) 08:00 ~ 16:00

5. 2월 11일(수) 08:00 ~ 16:00

6. 2월 12일(목) 08:00 ~ 16:00

7. 2월 13일(금) 08:00 ~ 16:00

8. 2월 14일(토) 08:00 ~ 16:00

9. 2월 15일(일) 08:00 ~ 16:00

10. 2월 16일(월) 08:00 ~ 16:00

11. 2월 17일(화) 08:00 ~ 16:00

12. 2월 18일(수) 08:00 ~ 16:00

13. 2월 19일(목) 08:00 ~ 16:00

14. 2월 20일(금) 08:00 ~ 16:00

15. 2월 21일(토) 08:00 ~ 16:00

16. 2월 22일(일) 08:00 ~ 16:00

17. 2월 23일(월) 08:00 ~ 16:00

18. 2월 24일(화) 08:00 ~ 16:00

19. 2월 25일(수) 08:00 ~ 16:00

20. 2월 26일(목) 08:00 ~ 16:00

21. 2월 27일(금) 08:00 ~ 16:00

22. 2월 28일(토) 08:00 ~ 16:00

23. 2월 29일(일) 08:00 ~ 16:00

24. 2월 30일(월) 08:00 ~ 16:00